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

성경: 레 1:3-11, 13-14, 17, 6:9, 12상, 13, 민 28:2,
스 1:2-3, 5, 3:2-3, 6상, 시 43:4상, 엡 5:2, 롬 12:1

I.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 스 3:2하.

A.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 — 스 1:2-3, 5, 3:2-3.

1. 교회생활을 위해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은 제단이다 — 롬 12:1.

a. 교회생활을 하려면 먼저 모든 것을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 시 43:4상.

b.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전 존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출발이다.

2. 문제는 우리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롬 12:1.

a.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빌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b.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B.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 출 27:1, 40:6, 히 13:10.

1.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십자가라는 한길을 주셨다 — 고전 2:2.

a.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중심이다 — 갈 1:4, 2:19-21, 3:1, 13, 5:24, 6:14.

b.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 골 1:20-22, 2:11-15.

2. 십자가는 모든 영적인 체험의 기반이자 근거이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 갈 2:20, 6:14, 고전 2:2.

a. 영적으로 진보하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 마 10:38, 16:24, 눅 14:27.

b.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 엡 2:14-16.

c.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것이다 — 고전 1:17-18, 23.

II. “그들은 ...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 스 3:6상.

A.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이신 것을 상징한다 — 레 1:3-9.

1.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던 번제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엡 5:2.

2.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고 절대적인 생활을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 5:15, 갈 2:19-21.
 3. 번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따라서 번제물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다 — 고전 6:17.
- B.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음식을 누리심으로 만족하신다 — 민 28:2.
1.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 자신에게 먹을 무언가를 제공하실 수 없다. 그분의 음식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서 와야 한다 — 민 28:2.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식이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식이 되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음식이다.
- C. ‘번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레 1:3, 10, 14.
1.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 요 6:38.
 - a.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신다 — 요 4:34, 5:30, 히 10:8-10.
 - b. 주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다 — 요 6:38, 5:17, 36, 43, 8:28, 10:25, 12:49-50.
 2.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레 1:4, 고전 6:17.
 3.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 곧 번제물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신다 — 갈 2:20.
- D. 번제물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 레 1:9, 13, 17.
1.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안식의 향기’ 혹은 ‘만족의 향기’를 의미한다 — 레 1:9.
 2. 만족시키는 향기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향기이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향기는 하나님께 누림이 된다.
 3.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향기이자 달콤한 향기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렸다 — 엡 5:2.

III. 레위기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제물은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이다 — 레 1:3.

- A.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상태, 곧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범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 창 1:26.

2.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B.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목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인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창 1:27-28, 비교 시 73:25, 막 12:30.

C.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 례 1:3-4.

IV.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살아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 롬 12:1.

A. 번제물은 우리의 헌신, 곧 우리가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예표이다. 헌신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례 1:3-4, 8-9, 6:9, 12상, 13, 롬 12:1.

B. 구약에서 매일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표한다 — 민 28:3-8.

C.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매일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 례 1:3-4, 8-9, 6:9, 12상, 13.

V.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그분의 갈망을 이루어야 한다 — 례 1:3, 9하, 민 28:2, 요 4:23-24.

A.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제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요 4:23-24.

B. 합당한 경배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문제이다 — 벰전 2:5, 요 4:34, 5:30, 8:29.

1. 우리가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그분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올라갈 것이다 — 례 1:9, 요 4:23-24.

2.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에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이다 — 민 28:2.